

2013년 FAPS Polymer Congress 참가 후기

2013년 5월 14일(화요일) 인도의 방갈로르로 가기 위해 새벽부터 부산을 떠나며, 급히 인천공항으로 나갔다. 나는 본래 한 가지 항공사만 고집스럽게 이용해 오고 있었는데, 동행하는 진정일 교수님께서 인도에 가서 domestic 항공기 갈아타기가 만만치 않을 터인 즉, 싱가포르에서 직접 Bangalore로 입성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받아 드려 싱가포르 항공사를 이용하기로 하고, 비행기 표를 구입하여 싱가포르 공항에서 6시간 동안 기다려서 밤중에 방갈로르에 무사히 도착하여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나흘(수요일-토요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었다(무덤고, 갈 곳이 없어서!). FAPS(Federation of Asian Polymer Societies) Congress에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수영 교수님이 plenary lecturer로서 훌륭한 강의를 하셔서 인기가 대단하였었다. 또한, 한양대 김낙중 교수님, 한국화학연구원의 최길영 박사님이 초청연사로 참가하였다. 안타까운 사실은 포항공대 김진곤 교수님이 Keynote Speaker였는데, 연구재단 과제 발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쉬웠었다. 반갑게도 인도에서 개최되는 MACRO-2013에 KAIST의 정희태 교수님, 울산과학기술대 (UNIST)의 박수진 교수님들이 초청연사로 참석하였다. Venu는 인도의 과학도시 방갈로르였으며, IIT에 버금가는 IIS(Indian Institute of Sciences)에서 개최되었다. 그곳에서 몇 개월 전 교수 한사람이 테러를 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위험한 곳이니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곳으로 빠져 나와야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었다. 그렇지만 무사하게 학회가 진행되었으며, banquet에서 진정일 교수님께서 장중을 압도하시는 유머러스한 훌륭한 speech로 장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주셔서 학회를 빛내 주신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다음에는 더 많은 젊고 훌륭한 과학자들을 초청연사로 추천해야할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카레와 닭고기를 즐겨하지 않는데, 5일 동안 식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호텔에 중국 레스토랑이 있어 배고픔은 면할 수 있었다. 인도는 아직도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발전된 것은 보이지 않았으며, 교통 불편이 조금은 머리를 식히지 못하게 한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여러 나라 과학자들과 교류한 것은 매우 즐거웠었다. 다음은 쿠알라룸푸르에서 2년 후 개최되며, 다시 2년 후 한국에서 congress가 개최되는데 조금은 기다려진다.



〈2013년 5월 방갈로르 IIS에서의 한국 과학자들 모임〉

〈경희대학교 김정안〉